



돈 후회없이 벌고 미련없이 쓰는 7가지 기술



돈 때문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
노주한 옮김
수희재 | 1만2000원

‘어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돈에 고뇌하고 있다는 표시인지도 모른다. 삶이 고통(苦海)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개가 돈 때문이기 쉽기 때문이다.

돈은 인간의 더할 나위없이 신성한 발명품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돈으로부터 괴로움을 겪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어긋난 심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어떤 심리를 키워가게 되고, 그것이 성인기에 이르러 고통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다.

돈을 인생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제한

-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 ‘무엇을 하고 싶은가’
 - ‘어디에 살고 싶은가’
- 3가지 근본 물음에서 출발하라

네가 말하는 인간이 돈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들어 있다. 미련없이 후회없이 쓰고, 돈을 인생의 파트너로 만드는 7가지 기술이 그것이다.

불교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연간 수억달러를 관리하는 미국 제일의 파이낸셜 플래너인 저자는 먼저 인생의 목표를 3가지로 정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살고 싶은가’. 이러한 3가지 근본 물음에서 출발하여 ‘무지’ ‘고통’ ‘지식’ ‘이해’ ‘활력’ ‘비전’ ‘알로하’ 등 7가지 단계의 가르침을 꼼꼼히 성찰하라고 주문한다.

7가지 단계는 첫째 우리가 돈에 휘둘리는 것은 돈에 ‘무지’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둘째 돈이 주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너를 일깨우는 종과 같이 때문이다.

셋째 돈을 버는 ‘지식’은 따로 있다. 실리적인 지식을 갖추되, 지식이란 지혜와 달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

넷째 사람이 깊이 ‘이해’ 하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 인간관계를 풍부히 발전 시킨다.

다섯째 ‘활력’이 없으면 행동이 따르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끝까지 이뤄내는 힘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한다.

여섯째 인생의 목표는 길게 그리고 ‘비전’을 되도록 크게 잡는다.

일곱째 돈에 대한 최고의 경지는 하와이 말로 ‘안녕하십시오’라는 인사와 더불어 관용과 친절함 마음등 넉넉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알로하’에 들어 있다.

각 장을 순서대로 읽다보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예로서 3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돈이란 필요하면 오게 되어 있다는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하류층 여성, 돈이야말로 세상을 바꾼다는 신조에 인생전부를 건 중류층 남성, 태어날 때부터 필요한 것이 주어져 있지만 정작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소외당해왔던 상류층 여성이 그들이다. 이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저마다 돈에 얽힌 사연들을 털어놓는다. 저자는 이들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으로, 어릴 때 받았던 돈의 메시지가 성인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빛의 구멍 틈이 빠져 허덕이거나, 돈을 벌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결국 돈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책을 읽다보면, 내가 어느 단계의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각 단계는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꼭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마스터함으로써 돈을 버는 방법과 쓰는 법, 돈과 인생을 잘 조화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책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까지 알려준다는 것이다. 삶의 활력을 얻고, 나아가 돈을 공격처럼 자유롭게 호흡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책을 권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네티즌강추

허 찌르는 결말...우리사회 부조리 고발

악어떼가 나왔다 문학동네, 안보윤 지음

경찰청장의 외동아들이 마트에서 실종,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 마트의 보안실장,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생선장수 부부가 시체를 유기하기 위해 마트에서 산 가방속에서 발견된 경찰청장의 외동아들, 마트의 보안실장과 연예인을 지망하는 생선장수 딸의 온라인 관계 등등.

이 소설의 구조는 읽고 나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읽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설의 틀로 결과를 예측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은이는 독자의 허를 찌르듯 소설을 끝내고 있다. 우리가 쉽게 대하는 소설의 줄거리를 대입한다면 결론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 각박한 오늘의 삶에 대입한다면 차라리 희망적인 메시지일 지도 모르겠다.

읽으면서 ‘뭐 이런 소설이 다 있어’ 하는 생각을 했다. 읽고 나서는 다른 어떠한 생각보다는 가슴이 후련하기 보다는 무엇인가 큰 것에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모습은 이 소설의 설정과 유사하다. 글을 읽고 나서도 가슴이 후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후련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작가에게 앞으로 나올 작품에 기대를 건다. (sciencepak, yes24.com/Goods)



“되는 대로 시집가서 애 낳고 살 거라고?”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랜덤하우스중앙, 남민숙 지음
원래 헤어지지 않았으면 만나던 애인에게 줄 계획으로 샀던 책. 제목과 미리말 글이 너무 좋아서 선물해 줄려고 구입했는데, 웬걸 헤어져버렸으니 내가 읽는 수밖에.

앞문 제목부터 심상치않은 이 책은 정말 나은 여자가 되기 위하여, 조건 좋은 남자 멋진 여자가 되기 위해 쓴 것 같다. 여자입장에서 최대한 읽어서 남자인 내가 내 삶에 반영하려고도 한 이 책은 정말 20대 여성이라면, 큰 야망과 꿈을 가진 여성이라면, 아직 길거리를 못잡고 ‘애유~ 강~ 되는 대로 시집가고 애낳고 살래~’라는 천박한 생각을 하는 여자라면 여러번 다독여야 할 책일 듯 싶다.

남자인 나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았으니 내 삶에 적용시킬것이지, 나중에 만나게될 내 사람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휘청이는 주위 여자동생들에게도 감히 진심어린 충고도 몇 마디할수 있으리라. 읽든 읽어보든 참 좋은책. 남자들이여 긴장하라. 이런 여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말고.

이런 남자가 되어야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섭섭해 하지 말자. (hnc0306, book.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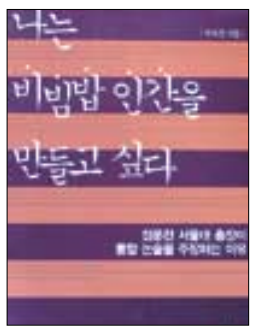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긋기

○... 만약 당신이 어떤 업무를 끝내야 한다면, 실제 그 일을 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업무 시간의 100퍼센트는 아닐 것이다. 브레인스토밍과 방법적 탐색,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독서, 책략 단련 그리고 약간의 게임을 피우는 데에도 업무 시간을 할애한다.

우리가 관리자였을 때를 돌이켜 보면서 이전에 우리 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해지우는 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말 핵심적인 질문인 ‘이 일에 대해 할 필요가 있긴 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내지 못했다.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햄버거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해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생산 관리식 사고는 모든 노동력을 100퍼센트 작업 모드로 밀어붙이는 데 전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마치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피플웨어: 정말로 일하고 싶어지는 직장 만들기> 29쪽, 박승범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나는 비범한 인간을 만들고 싶다
박태식 지음 | 류스 | 9000원

미래사회 리더 통합사고형 인간

나는 비범한 인간을 만들고 싶다 박태식 지음 | 류스 | 9000원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통합형 논술을 주장하는 이유는?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간 만들기.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예술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자연과학도, 과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문사회학도의 탄생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인간의 특징은? 흑백논리 대신 역지사지, 인

문과 자연과학을 모두 이해, 사의과 공익을 증시하는 공동체적, 남을 너그럽게 자신에게 업겨, 엘리트주의를 거부하는 엘리트, 건강한 예비시민을 일컫음.

‘비범한 인간’은? 단편적 정보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독창적 문제의식 아래 술한 정보의 바다에서 씨줄과 날줄을 엮는 ‘창의적 경쟁력’ 있는 젊은이. 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현지인들과 잘 적응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식과 교양이 있는 글로벌 인재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21세기 유망민을 말한다.

현재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초대관심사인 통합형 논술, <나는 비범한 인간을 만들고 싶다>는 정 총장이 왜 통합형 논술을 주장하는지와 어떻게 하면 통합형 논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창의적 인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정운찬 코드의 실제, ‘머리좋은 포라이’ 시대 오다, 논문의 핵심 화두 ‘윤리’, 논술의 목표 ‘상식 경쟁력’ 키우기 등으로 돼 있다.

김원우 기자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문제현선사님역사 / 27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 역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깨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물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새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대원 문제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이 시대의 아무선사로 불리는 대원 문제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법회가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 서울선원 - 반야심경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02-522-0122>
* 광주선원 - 선문염송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032-944-4088>
* 부산선원 - 금강경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00분 <051-545-2400>

www.zenparadise.com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원두막 겸 방기로 7000x4000x3200[mm]
홍보할인가격 559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성식 원두막**
전기 패널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x 820 x 350[mm] 가격: 150,000 원 / 120,000 원
1800 x 1030 x 350[mm] 가격: 180,000 원 / 150,000 원

특수 대역권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어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편하여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립사양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www.bangazo.com FAX: (063) 323-3012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서 무료배송 [전통목부기세벌도] 지역대리점 보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山寺 조청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숯이오르지 않는 山寺 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해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간장을 새끼배처럼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 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x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9중 9포(아홉번 찌고 아홉번 말림)한
약왕사
名品紅蔘
(명 품 홍 삼)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설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약왕사 주지 정명 합장

■ 제조원: 약왕사(왕승농산)

전화 054)371-6665
팩스 054)371-6675
휴대폰 010-2513-6665